

# 자동차

Car

## 업계마다 '한가위마케팅' 질주



기아 세라토



현대 그랜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자동차업계의 '한가위 마케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산차업계는 여름철 피업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차값을 깎아주거나, 무료 시승행사를 갖는 등 다양한 판촉 행사를 마련했다. 수입차업계는 초기 구입비용이 적게 드는 리스상품 출시를 통해 실질 구매객은 물론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잠재고객 확보에 나섰다.

### 수소 연료전지 콘셉트카 현대, 獨 모터쇼 첫 공개

현대자동차는 세계5대 모터쇼 중 하나인 '제62회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수소 연료전지차인 콘셉트카 '아이블루 (i-Blue·사진)'를 최초로 공개했다.

'아이블루'는 미래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할 수소 연료전지차(FCEV)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3세대 연료전지 콘셉트카다. 특히 '아이블루'는 100kW의 출력으로 일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최고속도 165km로 기존 투싼 연료전지차보다 완성도를 크게 향상시켜 현재 양산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에 버금가는 성능을 자랑한다.

'아이블루'는 홀로그램을 이용해 운전시 필요한 주요 정보를 계기판 위 공간에 입체로 표시해 주행 중 운전자의 시선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GM대우 토스카



렉서스 IS250

◇국산차업계, 차값 할인 등 혜택 다양=현대자동차는 에쿠스와 투싼, 쏘나타, 그랜저, 아반떼 등의 구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한가위 맞이 유튜브'를 지원한다.

에쿠스 구입고객에게는 200만원을 제공하고 투싼과 쏘나타 구입 고객에게는 각각 100만원, 7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그랜저와 싼타페를 사는 고객에게는 각각 50만원의 유튜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만 26세 이상의 홈페이지 회원 및 저점·대리점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석연휴(21~27일)에 차량을 무상 대여해 주는 '한가위 맞이 귀향 렌탈 이벤트'도 마련했다. 또 전시장을 방문한 고객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40인치 LCD TV를 제공한다.

기아차는 추석을 맞아 대부분의 차량에 대한 할인행사를 벌인다. 뉴세라토, 쏘렌토, 카렌스 구입 고객에게는 각각 30만원을 할인해주고, 로체, 스포티지 구매고객에 대해서는 각각 40만원을 깎아준다. 모닝과 프라이드, 카니발의 경우 각각 10만원이 할인된다.

기아차 또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한 고객 가운데 60명

### 차값 깎아주고 무료시승 대대적 판촉 수입차업계도 리스 상품 출시 잇따라

를 선정해 연휴기간 카니발 34대, 뉴카렌스 16대, 세라토 10대 등 총 60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추석 귀향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

르노삼성차는 귀성비 명목으로 차값을 할인해준다. SM7 2300cc 모델과 3500cc 모델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각각 30만원, 50만원을 지급하며, SM3 구입 고객에게는 20만원을 지원한다.

GM대우는 토스카, 윈스톱을 대상으로 3년 뒤 차값의 50%를 보장해주는 '중고차 보장할부'를 연장 실시하고, 마티즈·라세티 등은 할인 혜택을 준다.

이밖에 쌍용차는 16일까지 영업소를 방문한 고객 가운데 시승 신청고객 3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과 함께 뉴로디우스 11인승을 추석연휴 기간 무료로 제공한다.

◇수입차업계, 리스 상품 출시 '러시'=불보는 10월 말까지 C30 2.4i와 터보모델인 C30 T5에 특별유에 금융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불보 C30 2.4i는 차값(3천290만원)의 35%(1천151만5천원)를 구입시 지불하고 36개월간 월 38만3천원을 납입하면 된다. 이후 차값의 40%(1천316만원)을 완납하면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

한국도요타는 9월부터 렉서스 ES350과 IS250 구입고객을 대상으로 유에할부 리스를 실시하고 있다. 차값의 30%를 선수금으로 납입하면 IS250(판매가격 4천650만원)은 36개월간 월 49만3천597원씩, ES350(판매가격 6천520만원)은 월 60만6천599원씩 부담하면 된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엔 추가리스를 설정하거나, 나머지 비용을 완납하고 차를 소유할 수 있다.

한볼모터스도 9월 한 달간 푸조 207의 특별 금융리스를 실시한다. 차값의 30%를 선수금으로 납입하면 36개월간 207GT는 월 29만5천원, 207CC는 36만5천원을 내고 탈 수 있다. 이후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에금(차값의 50%)을 완납하면 차량을 가질 수 있다.

BMW는 월 30만원대로 328i를 탈 수 있는 특별 리스프

로그램을 마련했다. 차값(6천390만원)의 30%(1천917만원)를 선수금으로 납부하고, 36개월간 월 39만6천446원을 납입하면 된다. 유에금 3천514만5천원은 리스를 연장하거나 안할 뒤 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

크라이슬러는 뉴 세브링, 300C 3.5, 닷지 캘리버 등 주요 차종의 디젤 모델을 대상으로 등록세(5%)와 취득세(2%)를 전액 지원해준다. 그랜드보이저 디젤은 취·등록세 지원과 36개월 무이자 할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이밖에 혼다는 레전드 구매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와 내비게이션을 제공한다. 어코드 2.4 구매고객에게는 DMB 내비게이션과 액세서리 패키지를 무료 장착해준다. 어코드 3.0 고객에게는 등록세(5%)를 지원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푸조 207



크라이슬러 뉴세브링

### 귀성차량 특별점검서비스 나선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추석 귀향길에 오르는 고객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 서비스에 나선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오는 26일까지 전국 서비스센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추석 귀성 고객 차량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선 22일까지는 전국 지역 서비스센터 및 정비협력업체 2천400여곳에서 냉각수, 엔진오일 등을 점검하고 장거리 운행에 대비한 차량관리 요령 등을 안내한다.

이어 연휴기간인 22~26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32개 휴게소에서 서비스 코너를 운영한다. 이 기간 현대·기아차는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연인원 5만명을 투입, 전국 어디서나 고장 차량 긴급출동 및 응급도움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차(www.hyundai-motor.com), 기아차(www.kia.co.kr) 홈페이지나 고객센터(현대차 080-600-6000, 기아차 080-200-2000)로 문의하면 된다.

GM대우도 22일까지 추석 맞이 A/S 캠페인을 벌인다. GM대우는 전국 정비사업소와 지정 정비공장 400곳에서 입고 고객에게 엔진오일, 에어필터, 브레이크 패드 등 5개 항목을 무상점검 해준다. 문의 GM대우 고객센터(080-728-7288).

쌍용자동차도 연휴기간 전국 8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서비스 코너를 운영한다. 르노삼성차는 종합상황실을 통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평소대로 운영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공인증개사 전문학원**  
**문제풀이** 심상명(총장)·오하교(시무국장)·이복수(주무국장)  
**개강 9월 3일** (수) 19:00  
**공인증개사전문원 전국협력률 1위**  
**361-8111** / **520-8111**

**한자한문지도사 자격모집**  
**10.28** 공인증개사 합격  
**최종문제풀이 특강** 6주 완성  
**9.10** 개강  
**광주고시학원**  
 227-8303 / 371-0002

**지리산한약방 다이어트**  
 다이어트-원형신약·조루·허리디스크  
 "특별한 계급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지켜주세요"  
 HARVERD 검색상어 지리산한약방 을 치료세요  
**문의** 1062)531-3836, 531-0700 / 523-4800, 011-9612-5530

**10.28 공인증개사 합격**  
**최종문제풀이 특강** 6주 완성  
**9.10** 개강  
**광주고시학원**  
 227-8303 / 371-0002